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 中國 山西省 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

이 선 이
(경희대학교)

머리말

- I. 구술자 피해 양상의 개략
- II. 피해자구술이 말하는 일본군 성폭력피해의 특질
 1. 피해자의 시간 기억과 피해시기
 2. 감금기간과 주 ‘가해자’
 3. 괴뢰군(정권, 단체) 관여여부
 4. 석방상황
 5.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후유증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8-A00005).

● 투고일: 2015. 11. 2. ● 심사일: 2015. 11. 20. ● 게재확정일: 2015. 12. 17.

요약

본 논문은 중국 山西省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의 구술을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분석 고찰한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들은 대부분 1939년과 1941년에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구술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1939년 일본군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0년 백단대전에서 크게 패하면서 물러났다가 재점령한 1941년을 전후한 시기에 잔인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감금기간은 1년 이상 장기간 감금되어 성폭행을 견디어냈다는 증언부터 몇 일 혹은 십 수 일 동안에 걸쳐서 폭력을 당하였다는 증언까지 다양하다. 또한 다수의 일본군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사람부터 한두 사람의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점령초기부터 점령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걸쳐서 일본군의 성폭력의 양태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감금기간과 폭행에 관여한 일본군의 인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폭행은 일본군에게 협조했던 ‘漢奸’들과 괴뢰조직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목을 당한 여성들부터 일본군의 요구에 괴뢰조직들이 마을의 여성들을 모으거나 괴뢰 간부의 집요한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응해야만 했다는 주장 등에서 충분히 엿 볼 수 있다.

넷째, 석방상황을 보면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維持會 등의 괴뢰조직을 거쳐서 행하는 식으로 여성들의 석방을 위해서는 금전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군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네트워크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져 구출할 수 없는 경우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버려졌다는 증언도 적지 않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의 성폭력을 겪어낸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후유증은 육체에 남겨진 상흔을 넘어 2차, 3차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낳으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항상 가해자들에게 보다 피해자들에게 더욱 잔인한 오욕이 뒤따르는 특징을 보이는데 중일전쟁기간에 일본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일본제국, 일본군, 성폭력, 산서성, 성폭력 피해자, 구술, '위안부', 이차 피해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중국은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여 다시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1949년 중국공산당은 천안문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장개석 국민당 정권은 타이완으로 옮겨갔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을 동북아의 반공기지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수립을 밀어붙인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반쪽자리 평화회의라는 한계 속에서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어느 정부가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선택권을 “일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평화조약의 체결 대상국이 되고자 한 장개석 국민당 정권은 1952년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인 『日華條約·附屬議定書』¹항에서 “일본인민에 대하여 관대하고 우호적인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은 스스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4조 갑항 제1항의 일본국이 제공해야 하는 용역의 이익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중화민국’정부가 실효지배 영역에 속하지 않는 중국전토의 배상청구권을 방기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1972년 2월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가 진행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1972년 9월 29일 중일 양국대표는 인민대회당에서 중일수교정상화 共同聲明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제7조는 전쟁배상 문제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선언한다. 중일양국인민의 우호관계를 위하여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요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제국이 1931년 이후 15년간 지속한 침략전쟁에 대해 타이완 정부나 공산당 정권 모두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일본에 대한 對日賠償請求權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정치적 이해는 고려되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인민)’들이 입어야만 했던 피해와 고통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1990년 국제법학자 董增이 “중국민간대일배상”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2년 3월 제7차 전국인민대회 5차 회의는 “일본국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의안”을 38명의 인민대회대표자 서명 하에 의안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7명의 ‘중국 위안부’ 배상자료’를 일본대사관에 제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국가배상과 개인배상을 별개 사안으로 다룬 글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

山西省 高庄村에서 학교 교사를 하던 張雙兵은 1982년 학생들과 산으로 나무하러 가다가 가을걷이가 끝난 산기슭 밭에서 홀로 수확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다. 학생들에게 그 할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과 함께 할머니의 가을걷이를 도와주면서 張雙兵과 할머니는 인연을 맺게 된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候冬娥이며 별명 蓋山西²⁾로 더 유명했다. 그 후 할머니는 감사를 표하고자 가끔씩 학교로

1) ‘위안부’라는 용어사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역사용어로 사용할지라도 용어의 가해자 중심성이 피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심각한 편향적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착하고 있는 것 같다. 본고의 주요 구술자료 중 하나인 張雙兵의 구술집 역시 『慰安婦 調查實錄』이다. 본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하고자 한다. 상황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위안부’라는 용어의 문제점 이외에 중일전쟁 당시 중국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성폭력은 ‘위안부’라는 개념으로는 전부 담아낼 수 없다. 앞으로 본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쟁터라는 상황이 맞물려 피해의 양상이 식민지 조선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제국(군)의 성폭력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蓋山西란 山西省 최고의 미인이라는 의미이다.

張雙兵을 찾아왔고 張雙兵도 틈나는 대로 候冬娥를 찾아가는 교류를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2년 6월 童增의 “전쟁배상관련 신문을 보고 그녀에게 억울함을 털어낼 기회라고” 아내와 함께 설득하자 비로소 그녀는 어렵게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이것을 기회로 張雙兵은 주변 여성들의 전쟁피해에 관한 조사를 끈기 있게 계속해 구술 자료집을 출판했다. 張雙兵의 노력은 그 후로 중일전쟁시기 일본군의 성범죄를 밝혀 일본국의 국가책임을 묻고자 한 여러 일본단체와 연결되어 재판과 연구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구술 자료집 張雙兵의 『“慰安婦” 調查實錄』(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14.10)의 79명을 중심으로 石田米子·内田知行編의 『黃土の村の性暴力』(創土社, 2004)에서 조사한 10명, 班忠義의 『ガイサンシー(蓋山西)とその姉妹たち』(梨の木舎, 2006(2011))에서 다루고 있는 피해자 7명, 段瑞秋가 『女傷-尋找侵華日軍性暴力受害者』(中國青年出版社, 2014.11)에서 서술한 山西省 피해자 3명, 일본에서 중국인 大森典子 『歴史の事實と向き合って-中國人「慰安婦」被害者とともに』(新日本出版社, 2008)의 6명에 대한 구술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각 자료들이 다루고 있는 피해자들은 겹쳐지는데, 일본의 중국 역사학자, 중국인 다큐영화제작자, 중국인 다큐멘터리 작가, 일본인 변호사들로 각자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보완적인 자료가 되어 이해를 돕는다³⁾.

3) 張雙兵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候冬娥라는 피해자를 필두로 山西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저변에서 해온 사람이다. 石田米子·内田知行은 「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態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의 구성원으로 18차례에 걸쳐 피해여성들을 방문하였다. 그 후 면밀한 현지 조사활동을 통해 구술 자료와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班忠義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역사를 주요 테마로 삼아 논픽션 저술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해온 사람이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하고 직접 山西省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다면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 결과물을 저술하였다. 段瑞秋는 山西省 피해자만이 아니라 중국 각지의 피해자들을 두루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출판하였는데, 광범위한 중국 각지의 피해자들을 비교적으로

山西省에서 자행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위의 자료집 이외에도 몇 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 중국의 劉萍은 1998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과 일본의 연합 조사단 14명이 山西省 孟縣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 4명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군이 山西省에서 자행한 ‘성폭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⁴⁾. 그는 이러한 일본군의 ‘성폭력’을 일본군 ‘위안부’⁵⁾라는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과연 ‘위안부’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 오지 농촌 중국인 ‘위안부’의 대표사례이며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기본 특징을 갖췄다. 즉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고, 이들을 감금시킨 유일한 목적은 일본군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와 똑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다.⁶⁾ 그밖에 山西省 陽曲縣 南溫川 위안소 및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大森典子は 1994년 10월 「中國人戰爭被害法律家調査團」의 일원으로 처음 중국에 조사차 들어가 「위안부」소송 변호단 단장으로 오랜 시간 국가배상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이다.

- 4) 劉萍, 1999, 「關於日軍山西“慰安婦”的調查報告」, 『抗日戰爭研究』 2.
- 5) 중국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의 한 분이신 万愛花씨는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근처에서부터 ‘위안부’가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의 兒童團에 들어가 활동하였으며 그 후 공산당원이 되었다. 어떻게 위안부가 되어버린 것일까? 일본인에게 강제로 능욕당한 것이다. 줄곧 저항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이다. 天津에 있는 ‘田’이라는 기자는 신문에서 나를 ‘위안부’라고 썼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싫다. 당신들 같은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적는 것을 참을 수 없다.”(班忠義, 2006(2011), 『ガイサンシー(蓋山西)とその姉妹たち』, 梨の木舎, 55쪽.) 山西省 潞安병원의 군의였으며, 중국인 생체실험에 6회 참가한 湯淺謙씨는 “‘위안부’라는 이름은 좋지 않다. ‘성노예’이다. 위안소, 아니 ‘강간소’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자신도 대어섯번 ‘위안소’에 간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손발이 묶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 하지만 조선인 여성이 예를 들면 太原에 끌려와서 싫으니까 도망가자고 생각해도 도망 갈수 없었다. 성에 관해서는 노예였던 것이다. 그 증거로 몇 십 번이나 남자의 상대를 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 간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성행위를 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싫어도 거절할 수 없었다.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파로사, 심부전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앞의 책, 108~113쪽).

山東省 齊南 일본군 “慰安所” 등 위안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본군이 화북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한 방식 및 위안부를 징집한 방식 등을 분석)한 글이 있으며, 山西省 娘子關의 일본군 ‘위안소’를 조사한 글도 있다.⁸⁾

田蘇蘇는 중국 당안관의 일본인 전범재판 기록과 대만 측의 자료집 및 증언 자료를 토대로 화북지역의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화북 각지의 위안소를 도시의 ‘위안소’, 일본군 근거지 근처 마을에 설치한 ‘위안소’, 근거지 내의 임시적인 ‘위안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군대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성을 징집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일본군이 여성을 약탈, 감금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으며, 일본군은 점령지 여성을 강탈하거나 괴뢰 정부와 조직을 이용해 징집, 전쟁포로를 위안부로 충당, 일본인 특무나 일본인 교민을 통해 취업 명목의 사기와 유괴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⁹⁾

山西省에서의 일본군 성폭력과 관련된 일본의 연구로는 가시하라 도쿠시의 2편의 논문¹⁰⁾과 앞의 『黃土の村の性暴力』에 실린 5편의 논문이 있다¹¹⁾. 이 글들은山西省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성폭력의 배경 즉, 무엇

6) 劉萍, 앞의 논문, 188쪽.

7) 曉蘇, 2004, 「“慰安婦”這一葉屈辱黑暗的歷史」, 『檔案天地』.

8) 劉玉珍, 2013, 「日軍娘子關慰安所遺址調查研究」, 『經濟研究導刊』 10.

9) 田蘇蘇, 2005, 「日軍慰安婦政策在華北地區的實施」, 『抗日戰爭研究』 2. 그 외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사 정리는 손염홍, 2014, 「중국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자료 수집 및 연구현황과 과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 자세하다.

10) 가시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 강해정 역), 2011, 「중국전선의 일본군 성범죄」, 『일본의 군‘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가시하라 도쿠시, 「일본군의 잔학행위와 성범죄」, 앞의 책.

11) 堀井弘一郎, 2004, 「山西省における日本軍特務機關と傀儡政權機構-孟縣の性暴力に關聯して」, 石田米子・内田知行編 『黃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内田知行, 「山西省孟縣における日本軍占領統治と抗日運動」, 앞의 책; 石田米子/内田知行 「山西省の日本軍『慰安所』と孟縣の性暴力」, 앞의 책; 石田米子, 「日本軍性暴力にかんする記憶・記録・記述 -山西省における戰場性暴力の調査から」, 앞의 책; 池田恵理子 「田村泰次郎が描いた戦場の性-山西省・日本軍支配下の買春と強姦」, 앞의 책.

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하라는 山西省에서 전쟁의 진행상황과 연동 속에서 “일본 병사는 왜 그런 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고찰”하며, 그밖에 일본군의 성폭력의 배경이 되는 山西省의 항일운동, 괴뢰 기구, 일본군 ‘위안소’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많은 부분 시사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구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배경과 정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 글은 일본 제국의 ‘(성)폭력’을 중일전쟁의 전쟁터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피해자 여성들의 구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지난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피해자=중국’, ‘가해자=일본’이라는 단순구도가 아니라 지배의 작동방식을 중층적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전쟁터로 화한 절대적 폭력이 행사되는 곳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피해와 가해가 단일한 형태로 구사되는 폭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일전쟁에서의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커밍아웃과 그 후 한국에서의 운동의 진행과정이다. 따라서 중일전쟁의 성폭력 피해를 일본군 ‘위안부’(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고 그 틀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전쟁터에서 자행된 성폭력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틀을 넘어서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 여성들의 구술자료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터뷰어가 기록한 것이라는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그 한계 또한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모르고 마을 역사도 모르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줌으로써 “스스로의 역사와 자존을 되찾게” 해준 구술 자료는 그 밖의 자료가 갖는 것만큼의 한계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구술자료는 그

간에 이야기되어왔던 그리고 기록되어온 전쟁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I. 구술자 피해 양상의 개략

공산당원과 維持會 간부, 염석산군에 들어가는 등의 전력을 지닌 마을 원로 楊時通¹²⁾은 “일본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연행**되는 경우 3가지 케이스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하나는 주변 마을에 할당되어 가족이 돈을 받고 인신공양처럼 모인 여성들, 두 번째는 ‘토벌’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연행되어 와서 가족이 인질금을 내고 해방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닥치는 대로 납치 감금한 경우이다.¹³⁾

피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는 “일반화나 수량화 할 수 없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유형화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술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는 일본제국이 자행한 점령지에서의 성

12) 河東村에 살고 있는 노인으로서 피해자 楊時珍의 오빠이며, 전쟁이 끝난 후 결혼한 아내 尹林香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尹玉林도 피해여성이다. 침략전쟁 당시 維持會의 회계를 담당했으며 河東村이 놓인 전반적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다.

13)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山西省孟縣農村における日本軍性暴力被害の証言記録」, 石田米子・内田知行編, 앞의 책, 60~61쪽.

폭력이 구체적 양태로 드러나는 데에 작동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료의 피해양상을 살펴보면 楊時通이 분류한 세 가지 강제연행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구술에 따라서 크게 첫째, 거점에 만들어진 ‘강간소’에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제공된 피해자들, 두 번째, 일본군과 괴뢰군이 무작위로 행한 납치 강간, 세 번째, ‘漢奸’의 개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이루어진 피해, 네 번째, 항일(공산당) 활동에 대한 고문과 복수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은 80여명 정도의 피해자의 구술을 ㉠ 이름¹⁴⁾, ㉡ 생년월일(사망년월일), ㉢ 연행일, ㉣ 감금지, ㉤ 감금기간, ㉥ 괴뢰군(정권, 단체) 관여 여부, ㉦ 해방상황(금진), ㉧ 후유증(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등의 8개 항목으로 분류한 표이다.

14) 이름 옆의 괄호로 표기한 것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준 사람을 의미한다.

사학연구 제120호(2015. 12)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괴뢰군 관여	해방상황	후유증
1	尹玉林	1922. 8.8.	1941.2. 무렵	警備隊 砲臺와 산위 포대	1942.9 (음)까지	自衛團 團長 劉(李?)二근	陽曲縣으로 재혼 이주	아들 사망, 부인병
2	楊時珍	1924. 6.15.	1941 혹은 1942 봄	자택, 羊馬山 포대 요동, 東郭湫 據點	2개월 정도		維持會 회계 오빠 와 괴뢰구장 인척, 금전	부인병, 불임, 정신병
3	楊喜何	1919. 10.20	1942 연말	河東촌 친정	1943. 가을		1943년 일본군 河 東포대 철수	부인병
4	南二僕	1912	1942 봄	河東촌 羊馬山 포대내 가옥	1년 8개월	維持會장이 동생 구명	陽曲縣으로 도망	불임, 삼반오반 운동과 문화대혁 명 비판
5	高銀娥	1925. 7.12.	1941. 4.4	河東촌	15일 후			불임, 주변인의 시선
6	趙潤梅	1925. 1.26.	1941. 4.2.(음)	河東포 대 요동	40여일		銀貨 210원 일본군 에게 건네줌	결혼 어 려움, 불 임, 이혼, 정신병
7	張先堯	1926. 9.1.	1941. 1.2.	河東포 대 요동	20여일		400銀元을 당시 烏 耳庄의 괴뢰촌장 吳老虎 통해 일본 군에게 줌	출혈 등 신체적 질병, 악몽 등 정신적 고통
8	万愛花	1930. 1.11.		진규사 요동	1주일 정도 (첫 번째)	노새대장, 일본군, 한간 등의 폭행	틈을 보아 도망. 두 번째는 고문으 로 사망했다고 보 고 강에 버린 것을 어느 노인이 구출	사산, 불임
9	趙存妮	1918.7.	1942.8.	西煙포 대	30여 일		380銀元 일본군에 게 건넨	전 재산 잃음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권여	해방상황	후유증
10 王改荷	1919. 3.4.	1942.봄	河東촌 羊馬山 포대 내 가옥	20여 일		黑腿子가 초죽음 상황임을 아빠에 게 알려, 토지와 가재를 팔아 銀元 120원 마련, 건네 고 구출	전제산 잃고, 뒷담화, 2년간 거동불가
11 侯冬娥	1921.3.	1942.8 두 차례	進圭	2주 정도/ 3개월 전후	피뢰촌장 요구에 가이산시, 두 번째 위협에 촌장이 재 차 부탁	첫 번째 지하공작 원 도움으로 아편 자살 위장, 두 번 째는 1501大洋의 은화	임신, 낙태, 불임 1952년 整黨운동 속 비판 이혼 반복
12 馮將香	1926. 6.12.	1941(?)		20여일/	林士德이라는 한 간이 군대의 세탁, 청소 등의 잡무를 한다며 데리고 감	첫 번째 은화 100 大洋, 두 번째는 노인의 도움으로 탈출	
13 劉面換	1927. 6.28.	1941(?, 15세).3.	進圭	40여일	林士德이 馮將香, 劉二荷 3명 제공	100大洋의 은화 건 네고 병치료 명목	남자친구 가 버림
14 李秀梅	1928. 8.12.	1942 가을	進圭 거점 요동	5개월		600매 은화+500매 은화/몇 십 大洋	맛아 실명과 다리 부상, 결혼어려 움
15 陳林桃	1921. 6.22.	1942 어느 날	進圭 거점	한달	한 간 발고(張昇如, 張盟生), 張盟生이 劉玲月の 시누남 편으로 劉玲月 대 신 잡아감?	100大洋의 은화와 생아편 보내고(은 화 400매와 양 60 마리)	일본군 악몽
16 周喜香	1925.9. 12.	1943 李庄촌 소탕 당시	進圭 거점		李庄촌 소탕과정에 서 잡혀간 공산당 원 11명 중 유일 여성	유격대가 구출	불임으로 3번의 결혼, 주변에서 피해사실 을 알고 있다는 것이 고통

사학연구 제120호(2015. 12)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관여	해방상황	후유증
17	張二妮 (남편)	1924	1942	進圭 거점	20여일	마을의 안전을 위해 보낼 여자로 선출	100원 은화	100원 은화
18	胡壯娥 (엄마)	1931.5.	1944. 7.15.			趙家庄 慘案에서 윤간 살해		
19	劉銀愛	1926	1942(?)	進圭 거점			칼로 찢려 내다버 림	
20	劉二荷 (노인 들)	1923.5.	1941(?)	進圭 거점		林士德, 일본조장 등의 강간, 윤간	돈이 없어 林士德 에게 간곡히 부탁, 일본군이 양친촌 에 가면 반드시 집 에서 대기 조건	
21	柴 玉花	1925.7.	1943 여름	작은 산촌 한간의 집	몇 개월?			일생을 고통스럽 게 기억
22	侯巧良	1928. 6.21.		進圭거 점의 張孟望 집		陳志才(= 陳秀生) 한간 관여, 周潤香 (부촌장 아내, 50세 진후), 侯玉彬(주유 향 딸, 17세), 侯二 毛(18세), 趙變梅(20 여 세로 임신 6,7개 월), 陳喜云 등과 함께 잡혀감	혼약자 집에서 돈 마련, 실려 나옴.	13세의 폭력이 정신과 육체 망가뜨려 3번의 결혼 반복, 자녀 학대
23	張小妮	1924. 5.26.	1942 가을	進圭 거점			60大洋 지불 후	불임, 생활 곤란
24	侯金良	1926. 2.3		進圭 거점 요동			維持會장을 찾아가 일본인이 양을 먹 고 싶어 하니 보내 라고 해서 풀려남	정신적 고통, 河北省으 로 시집, 귀향하지 않음
25	郭喜翠	1927. 2.9.	1943	進圭 거점		木板대장 “네 형부 의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여기 남아 라.”	병이 극심해 뇌가 불명확, 말도 제대로 못하자 집에 돈을 요구한 후 노새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관여	해방상황	후유증
						몸이 망가져 치료 요할 때도 “치료 후 돌아오지 않 으면 형부와 언니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에 실려 귀가.	
26	周潤香 (侯巧 良의 정보, 이하 4명 동일, 노 인)	1892		進圭 거점	노인으 로 바로 풀려남		이미 노인으로 얼 마 간의 금전을 내 고 바로 해방	
27	侯二毛 (노인)	1924		進圭 거점				가난 지속적 윤간으로 임신 사망
28	趙變梅 (노인)	1922	보름	進圭 거점	侯玉桃 와 함께		몸이 너무 망가져 侯 玉桃와 함께 해방	
29	侯玉桃 (노인)	1925.5.	보름	進圭 거점	趙變梅 와 함께			
30	陳喜雲 (노인)	1921		進圭 거점	한간 陳志忠 의 친척, 바로 풀려남			
31	張改香	1925. 7.7.	1942.6.	進圭 거점		친척들에게 위해 가 얹려되어 도망 도 못 가다가		
32	周變香	1924. 12.25.	1943.6.	進圭 거점	10여일 후		많은 돈을 치름	채무번제 만 20년, 잇을 수없는 고통
33	李喜梅	1921. 2.23.	1939(?)	進圭 거점			가족들도 파악을 못하였음	

사학연구 제120호(2015. 12)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관여	해방상황	후유증
34	邢三妮	1924. 6.26.	1941(?) 6.26.	進圭 거점		홍안(伊蘆)대장, 노새대장	100대양 검은 수염 에게 건넨	불입, 트라우마
35	曹黑毛	1922. 9.10	1941 가을	進圭 거점	봄까지		감시 소홀 도망	혼약 과기, 임신 낙태, 출산후 버림, 불입
36	韓銀梅 (아들 霍貴和 지인)	1921.2.	1943	進圭 거점			돈을 구해서 보내고	요실금 등 지병
37	劉海蓮	1925.8.	1943.5. 어느 날	河東 거점			몸과 마음이 무너 져 일어나지 못하 게 되자 가족들에 게 테러가도록	
38	劉計花	1928. 11.	1943.5. 어느 날	河東 거점				
39	尹林香	1920.1.		河東 거점	2년간		심각한 부인질병으 로 풀려주었으나 상 태가 아주 심각	불임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음
40	尙春燕	1925.8.	1943.7 어느 날	河東 거점	10여 일 후		친척의 도움	
41	韓桃桃	1925.5.	1942. 3.8.	河東 거점	보름	한간의 일본군 제보 마을 간부에게 명령 촌간부들 매일 집으 로 와서 설득		
42	張五昭	1924. 8.7.	1941. 4.4.	河東 거점			100大洋	일생동안 약 복용
43	李壯林 (친척, 친구, 이웃)	1905.1.	1942 봄에서 여름으 로 넘어가 는 어느 저녁	河東 거점		남편 항전 참가, 李壯林과 王貴青 심문, 구타, 고문, 강간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권여	해방상황	후유증
44	王貴青 (친척, 친구, 이웃)	1926.4.	上同	河東 거점				한간으로 살해
45	楊壯來 (이웃)	1922.1.		西煙 거점				
46	趙存姝	1923.11.	1941.6.	西煙 거점	20여 일간		물건을 보냄	불임
47	王變良	1926.2.	1942 여름	上社 거점	십수일	10여 명을 거점으로 데려가 남자는 노동을 시키고 여자는 강간. 7명의 여자 중 나와 李變翠만 생존.	돈과 아편을 보내고	불임
48	李金連	1927.9.	1943.4.	上社 거점		李金連 張玉壯 함께 잡혀가 거점 아래 방에 갇힘		
49	張玉壯	1926.1.	1943.4.	上社 거점				
50	趙乃花 (侯計 秀 李存香)	1923.4, 1923.5, 1923.3 년		南溫泉	보름	大灣村에서 趙乃花와 侯計秀, 盤道村에서 李存香을 잡아 南溫泉 거점으로		
51	王壯秀	1926.4.		南溫泉			유산 출혈 등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지자 가족들에게 데려가도록	불임
52	劉乃妮			南溫泉	20 여일	한간 劉二喜, 2년 동안 여러 번 잡혀들어감		
53	劉乃妮 가 그 외 9명에 대한증 언							
54	姚乃妮	1927. 1.13				南溫泉의 劉三小 일본인의 한간. 三	가족들 100大洋	남편이 버림,

사학연구 제120호(2015. 12)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권어	해방상황	후유증
						太君이라고 불림. 그가 일본군을 데 리고 집으로 와서 끌고 가 南溫泉 거 점으로 끌려감		재가 불가능
55	賈石頭	-	-	-	-	일본인에 대한 ‘임 무’를 교대하라고 피뢰촌장이 말해 거점 “위안부”		
56	王娥孩	1929. 12.25.	1943. 1944.3. 중순	交口村		한간 張水魚의 밀고	돈과 옥수수, 달걀, 닭 등 維持會로 보 냄 / 고문, 운간 반 복. 마을 밖 산골 짜기에 내다 버림	
57	李金魚	1930. 3.7.	1944.2.	交口 거점	두달	일본군 川上 대장 의 지휘 아래 마을 에 팔로군을 잡으 러 왔다가 실패하 자 화풀이로 마을 남녀 4,50명을 데 리고 교구 토치카 에 가둠	돈과 물건들 보내고	
58	劉海云	1920. 9.22.		交口 거점			가족이 50은원을 준비 귀가	
59	李金娥	1930.2.	1944.2. 어느 새벽	交口 거점		일본 침략군 川上 대장이 일본군과 羊庄촌으로 와서 약탈		지금까지 시력회복 되지 않 음. 불임. 생활고
60	李富蘭	1928.5.	1944.2. 어느 새벽	交口 거점			어느 날 밤 일본군 전쟁으로 전부 나 가고 없을 때 몇 명의 여자들과 함 께 도망	
61	郭毛孩	1926.12. 26			보름	4자매 모두 잡혀 강 간 막내(12세)는 강 간폭행으로 사망	상태가 안 좋아지 자 동물 안에 방치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권여	해방상황	후유증
62	劉風孩	1924. 6.3.	1943 봄	固變 기차역		일본군 대장 川上 가 이끌고 東郷(靑 修일대) 약탈, 사람 잡아감	기절하자 산골짜 기에 갖다버림	온갖 트라우마 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
63	郭風英	1920.3.	1944.2.		두달	康家庄 주민들을 잡고 이어서 양가 산촌으로 와서	維持會장 요구	
64	白秀英	1929. 8.5.	1943.9.1 3.		1개월 이상		민사의 상태로 친 척이 일본군대장 에게 물건 보냄	
65	馮女兒	1926. 7.12	1939. 7.18./ 1944	南溝 거점	1달 이상/ 며칠 후	일본군 소탕에서 돌아가면서 남녀 30여 명, 그 중 공 산당원 살해, 여성 10여명 강간, 윤간	李二先, 李春花과 함께 병이 심해지 자 麻地溝에 버림	
66	郝改英	1917. 11.24.	1939. 4.18.	南溝 거점	1개월 이상		상태가 심각해지자 통역이 불쌍히 여 겨 일본군을 속이 고 탈출을 도와 줌	유산, 불임
67	郭云香	1928. 6.9.	1943.7.	南溝 거점	40여일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리 절단, 머리 선 혈 낭자한 채로 마 을 밖에 버려짐	불임
68	范連花	1923. 1.17.	1941.8.	南溝 거점 (挖針院)	몇일	한간 밀고	가족들이 어렵게 돈을 구해 풀려남	
69	趙蘭英	1923. 4.3.	1941.5 .19.	南溝 거점	2개월	남편 유격대 대장, 한간 밀고	일본군 내부에서 일 하는 사람의 도움	불임
70	李改蘭	1926. 7.18.	1940(?)	南溝 거점	4개월 (?)		그들이 초상으로 우리에게 소홀한 틈을 타 탈출	악몽
71	任蘭娥	1931. 10.14.	1944. 6.19.	南溝 거점	1개월 이상	한간특무 程連步 가 일본군에게 오 빠 任俊生이 팔로 군의 정보원임을 밀고, 오빠 체포 위 해 집으로 와 강간	팔로군 공격, 기회 를 틈타 가족들이 구출	

사학연구 제120호(2015. 12)

	이름	생년 월일	연행일	감금지	감금 기간	피뢰군 관여	해방상황	후유증
72	袁改連	1926. 6.24.	1942. 5.17.	南溝 거점	1개월 이상		일본군 감시 소홀 틈타 빨래 간다고 도망	
73	郭菊香	1922. 2.22.	1939.5.	南溝 거점	1개월 이상		일본인이 요구하 는 물건과 50대양 은화	
74	趙志蘭	1927. 10.	1943 봄	南溝 거점	두 달		기회를 틈타 탈출	
75	秦愛珍	1930. 5.13.	1941. 5.16	南溝 거점	32일	공산당원 긴급회 의, 한간 밀고	가족의 노력	
76	郭月連	1928. 7.31.	1943. 6.13.	南溝 거점		여자들 신체검사, 그 중 3명 불합격으 로 집으로 돌아감. 저녁이 되자 여자 6, 7명을 아주 더러운 방에 가두고 밤낮 가리지 않은 강간	다른 마을의 여자 잡아와 교대, 가족 들이 돈을 지불	불임
77	楊愛 花	1924.5.	1940.4.	南溝 거점	17,8일			

II. 피해자구술이 말하는 일본군 성폭력피해의 특징

다음은 도표에서 분류했던 일본군의 성폭력 피해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논하고 그 사실의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사안을 관계 속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피해지역은 山西省 盂縣 지역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陽曲縣, 沁縣, 武鄉縣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山西省에서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한 팔로군의 대대적인 공세 百團대전, 이에 대한 보복전 ‘三光작전(일본명 燼滅작전)’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련의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두 가지 양극단의 대응방식으로서의 친일조직=維持會와 淸鄉隊라는 군대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관련 속에서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당시의 山西省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의 서술은 많은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하여 장문이지만 인용한다.

일본군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일본의 침략군은 갑자기 盂縣 전역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팔로군의 항일투쟁과 일본군에 의한 ‘숙청, 토벌’이 교차하는 중에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싸움 또한 과혹해질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마을이 놓인 상황 속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어떤 마을은 팔로군과 함께 싸울 것을 선택하고, ‘항일마을’이 되어 격심한 ‘숙청, 토벌’에 맞서게 됩니다. 또한 어떤 마을은 ‘표면 존장’과 ‘실질 존장’을 만들어 일본군 폭행을 어떻게든 피하면서 항일세력과 연계합니다. 어떤 마을은 維持會라고 하는 일본군에 대한 협력조직을 만들어서 심각한 요구를 참아내면서 마을을 지키고자 합니다. 각각의 존재방식은 단순한 분류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천차만별로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서도 대응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을들의 필사적 노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¹⁵⁾

1. 피해자의 시간 기억과 피해시기

피해자들이 문자세대가 아니라 구술세대이며, 시간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달력에 입각한 구체성을 띠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생년월일, 연행일의 경우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기 보다는 계절의 변화, 혹은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등의 행위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일시는 대체로 음력이다. 이러한 구술자의 특징에 대해서 대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 大森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李秀梅씨의 생년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것이 몇 년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으면 “00살”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두 살을 빼야만 한다. 그리고 “언제 일본군에게 잡혔습니까?”라고 물으면 “16살 때”라고 답한다. 이것을 서력으로 바꾸면 태어난 해와 한두 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은 특정하기 어렵다. “몇월경의 일입니까?”하고 물으면 “여름경”이라든가 다른 피해자의 경우는 예를 들면 “호박꽃이 필 때”라는 답이 돌아온다.¹⁶⁾

이처럼 도표에서도 연행일과 감금기간이 ‘몇 년 어느 날’, ‘봄에서 여

15) 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編, 2000, 『今こそこの思いを』.

16) 大森典子, 2008, 『歴史の事實と向き合って-中國人「慰安婦」被害者とともに』, 新日本出版社, 23~24쪽.

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래는 피해자 陳林桃의 증언인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시간 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잡힌 것은 대추를 먹기 시작할 쯤이다. 나는 돼지해에 태어나서 15세에 2살 위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19살 때 1939년에 팔로군에 들어갔다. 그 후 5년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팔로군에 들어간 지 3년째에 잡혔다. 20세 때 음력 6월의 일이다. 그날 이불을 빨러 갔다가 …… 일본군 무리가 다가왔다.¹⁷⁾

피해자 陳林桃는 ‘대추를 먹기 시작할 쯤’, ‘남편이 팔로군에 들어간 지 3년째’ 등으로 피해시기를 말한다.¹⁸⁾

또 하나 감금지의 경우는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피해지는 河東거점, 進圭거점, 西煙거점, 上社거점, 南溫泉, 交口거점, 南溝거점 등에 집중되어 있다. 거점의 ‘강간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산위의 토치카로 끌려가서 피해를 입거나 하였다. 그 외 거점 밖의 민가 등에 갇히거나 자택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소수 있다¹⁹⁾. 포대 맞은편에

17) 班忠義, 앞의 책, 48쪽.

18) 張雙兵의 구술집에서는 시기를 추론해서 1942년 등 구체적 연도를 적고 있다.

19) 피해자 柴玉花는 자신이 감금된 곳과 도망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밤이 되자 일본군이 나의 집으로 찾아와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를 노새의 등에 싣고 작은 산촌의 한간의 집에 가두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에게 도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만약에 도망가면 우리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나는 일본인이 가족을 살해할까 두려워서 그곳에 있었다.” 張雙兵, 2014, 『“慰安婦” 調查實錄』, 江蘇人民出版社, 95~96쪽. 楊喜何는 “나의 친정은 河東촌내에서 羊馬山으로 향하는 외길을 끼고 경비대가 있는 포대의 맞은편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일본군 두 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쳐 강간, 차례로 밖에서 지켜면서 강간 … 시택으로 돌아왔으나 부모님의 상처와 일본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다. 강간당할지 알면서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 달 간격으로 친정과 시택을 오가는 생활 … 부모님과 동생들을 일본군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야만 했다.”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 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앞의 책, 46~48쪽.

있는 친정집에서 피해를 입은 楊喜何와 ‘작은 산촌의 한간의 집’에서 지속적 피해를 입은 柴玉花 등의 피해를 보면 점령지에서 행해진 성폭력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도표의 피해 시기에서 물음표는 피해자 본인이 몇 살 때의 일이라고 기억하는 경우 필자가 추론 한 연도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시기를 이야기 한 피해자들 가운데 1939년에 4명의 피해자(李喜梅, 馮女兒, 郝改英, 郭菊香)가 생겨난 이후 41년부터 44년까지 사이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피해 집중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山西省은 중일전쟁이 본격화하기까지 山西 문로주의를 표방하는 閻石山정권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다. 1936년 9월 閻石山을 총회장으로 하는 犧牲救國同盟會(약칭 희맹회)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중핵조직으로 발전



【그림 1】 중국 山西省 太原(타이위안)과 陽泉(양취안)의 경계지역에 있는 피해지 盂縣



【그림 2】 감금지 분포

하였으며 공산당원이 활동가로 조직을 지탱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盧溝橋事件이 발생하면서 일본군의 중국침략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일본군은 8월 북지나방면군을 편성하여 화북점령을 확대하여 山西省 침입을 개시한다.

이에 대해 閻石山은 국민정부군의 第二戰區총사령으로 전면에 서고, 陝西省 延安을 거점으로 하는 紅軍은 西安사건(1936년 12월) 후 第八路軍으로 편성, 第二戰區 第十八集團軍으로 山西省 항일전에 합류한다. 閻石山군과 방면군 그리고 팔로군이 平型關에서 격돌하고 이어서 한 달 가까이 최대 격전이 된 忻口전투²⁰⁾ 등을 거치며 10월말에 陽泉이 공략당하

20) 忻口, 太原 전투는 平津이 함락되고, 淞滬전투가 시작된 후 국민당이 太原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대전투였다. 이 전투는 1937년 10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계속되었다. 전투에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 115사와 129사 일부는 우선 平型關대첩과 陽明堡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정면전투로 나아갔다. 국민당군은 용감

고 11월 8일 太原이 일본군에게 함락된다. 그리고 일본군은 1937년 말부터 盂縣을 침공하여 다음에 1월에 盂縣현성이 점령된다. 현 정부는 그전에 북쪽의 上社鎮으로 이동했으나 그곳도 곧 일본군의 침공을 받는다.

일본군은 1938년 봄 전선 불확대와 병력축소 방침을 결정하여 장기 지구전을 각오하고 獨立混成旅團을 편성한다. 독립혼성여단이란 경비전문 병단으로 제2부터 제5여단까지 편성한다. 편성정원은 5,048명, 5개의 독립보병대대(정원 810명), 여단포병대, 여단공병대, 여단통신대로 구성된다.

독립혼성 제4여단(이하 독혼4여)과 제3여단이 제1군의 지휘 아래 있었으며, 제1군은 처음에는 石家莊에 사령부를 두고 京漢線연선과 山西省 일대 경비를 맡고 1938년부터 작전지역을 山西省으로 한정하여 사령부도 太原으로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혼성 제4여단은 陽泉에 사령부를 두고 正太線남북지역의 경비, 치안전을 담당했다. 盂縣방면으로는 여단 지휘 독립보병 제14대대(이후 독보14대대)가 전담, 1939년 盂縣 현성에 대대본부를 두고 있었다. 盂縣 서부의 西煙鎮 주변에는 閻石山의 신편 제2사가 주둔하고 있었다. 盂縣현성에 거점을 둔 독혼4여는 1939년 3월 正太線북방지구 肅正작전으로 盂縣지배의 전면적 확대 강화, 3월 9일 현성 북방 요지 上社鎮 점거, 토치카 설치 거점화, 3월 16일 현서부 중심 西煙鎮으로 들어갔다. 신편 제2사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進圭社를 거쳐 서쪽 賈莊 배후 산악지대로 철퇴하였다. 4월 ‘二’호 작전으로 西煙鎮 진주작전을 발동하여, 4월 15일 북쪽에 토치카를 만들어 영구 거점화하였다.²¹⁾

여기에 대해 「盂縣文史資料」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기록하고 있다.

히 싸웠지만 쌍방 간 전력 차가 극히 커서 析口, 太原을 연이어 잃었다. 이로써 화북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은 적 후방 깊이 들어가 근거지를 만들고 유격전쟁을 펼쳐 점차로 화북 항전의 주체가 되었다.

- 21) 加藤修弘, 「証言解説 大娘たちの村を襲った戦争—山西省盂縣の農村から見た日本軍の相貌」, 石田米子・内田知行編, 앞의 책.

일본군은 孟縣 현성을 점거하면서 閻石山정부 중에 남아있던 반동지주, 약덕분자를 모아서 維持會를 만들었다. 2개월 후에는 그것을 孟縣괴뢰정부로 만들어 괴뢰 第一區公所를 성립시켰다. 5월에는 현성의 東쪽 20華里 牛村鎮을 점거해서 괴뢰 第二公所를 성립시키고 1939년 봄에는 현성의 서쪽 70華里的 西煙鎮이 적의 손에 떨어져 괴뢰 第三公所가 설립되었다. 3월 9일 일본군과 괴뢰군은 현성 북쪽 50화리에 있는 上社鎮을 침공하여 거점을 설정하여 괴뢰 第四公所를 설립하였다. 얼마 후 牛村의 일본군과 괴뢰군은 東會里를 침범하여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괴뢰 第二公所를 東會리로 옮겼다. 이로써 우리 현 4지구의 큰 鎮은 모두 적의 손에 떨어졌다. 전현은 3월 9일 일본군과 괴뢰군은 현성 북쪽 50화리에 있는 滹沱河 양안, 後東山 일대 및 서부는 高庄촌 이북, 동부는 仙仁촌 以東 일대의 편벽하고 먼 산지를 빼면 대부분이 적 점령지구, 유격지구, 반유격지구가 되었다. 일본군이 점령, 지배한 거점을 설정한 마을들은 현 전체 마을 총수의 70%, 면적은 현 전체 총면적의 약 55%에 달하여 우리 근거지의 마을은 현 전체 총수의 23%, 면적은 현 전체의 약 30%가 되었다. 현 전체의 주요한 간선교통로는 모두 일본군의 지배하에 놓여 일본군은 孟縣현성, 東會里, 西煙, 上社의 4거점에서 항일 근거지에 대한 교란, 습격, 소탕잠식 침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²²⁾

1939년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점령시기의 피해자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군의 화북점령에 대해서 심각한 고립의 위기에 빠진 팔로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 1940년 8월 20일, 팔로군의 백단대전의 제1차 공격이 행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군(山西省 제1군)은 9월 1일 제1기晉中작전을 펼치고 9월22일 백단대전 제2차 공격이 행해진다. 화북의 광대한 지역을 전장으로 한 팔로군 105개단(단은 연대에 상당)과 민병조직이 참가하였으며 총병력 40만에 이르는 총공세였다. 특히 심하게 당한 것이 山

22)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山西省孟縣委員會·縣史資料研究委員會編, 1985, 「孟縣淪陷及光復概述」, 『孟縣文史資料』 第4輯.

西省을 경비하는 제1군이며, 그 중에서도 正太線 연선과 남북지방을 담당했던 독혼4여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피해지역의 경우 1940년 9월 8일 西煙진 집락 북쪽에 있는 일본군 토치카 거점이 팔로군의 급습과 맹공을 받았다. 이 거점에 주둔하고 있던 것이 獨步14대대 제사중대의 分遣隊였으며 일본군이 1년간 지배권을 빼앗겼다고 한다.²³⁾

백단대전으로 正太線 沿線을 경비하는 일본군의 分遣, 分屯거점 대부분이 공략 당하였으며 수송로 절단, 산업시설이 파괴(井陘경탄광 등)되어 “황군으로서 일본군 위신”에 결정적 타격(『北支那方面軍作戰記錄』, “燼滅掃蕩”)을 입었다. 이에 일본군은 “적 근거지에 대해서 철저히 신멸소탕하고 적으로 하여금 장래 생존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긴급하게 요한다. 이를 위해 무고한 주민을 괴롭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적성이 현저하거나 적성근거지임이 명확한 부락은 필요하면 불태워버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다.”(片山여단장명령으로 “토벌대에게 보내는 주의”)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중국명 三光작전(殺光, 燒光, 槍光)=燼滅작전이 행해진다. 이 진중작전은 1940년 12월로 종료된다. 그러나 이후로도 백단대전으로 잃은 실지 회복과 보복작전이 계속되어 1941년 晉察冀변구 肅正작전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에 일본군이 가장 흉폭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河東촌에 들어온 獨混四旅 獨步14大隊는 백단대전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부대 중 하나로 홍도촌 부근의 패배 등 다수의 전사자를 내고 많은 거점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입었다.

1940년 말 河東촌 진주작전, 西煙진 주변 臺地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탈환하기 위한 포석으로 실행, 주변의 산상(羊馬山)에 토치카, 東郭湫 주변에서 대량 농민 징발 침공, 완성 후 분견대가 상주하게 되었다. 河東촌에도 토치카를 건설하여 중국인으로 구성된 경비대를 두었다.

23) 加藤修弘, 앞의 글, 135~136쪽.

河東촌 주민은 전원 마을을 피신했다가 일본군 지배가 장기화되자 어쩔 수없이 돌아와 생활, 일본군의 직접지배를 받게 되면서 尹玉林피해자와 언니 尹林香²⁴⁾이 이시기에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河東촌 維持會를 조직하여 일본군에의 물자조달(여성포함)을 하였으며²⁵⁾, 維持會 산하마을은 山河村, 辛庄, 小湖村, 河底村, 東梁, 南頭村, 西社, 烏耳庄, 薛梨溝, 木來凹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1939년의 피해자와 1940년 백단대전으로 물러났다가 재점령 후에 각 곳에서 보복적 차원의 대대적 소탕이 행해지면서 1941년 이후의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2. 감금기간과 주 '가해자'

尹林香(2년), 南二僕(1년 8개월), 尹玉林(1년 6개월) 등 1년 이상 장기간 감금되어 성폭행을 견디어냈다는 증언도 있으며 최소 기한은 範蓮花(며칠), 尙春燕(10여 일)과 周變香(10여 일)에서 보이듯 일주일 정도의 기

24) 張雙兵, 앞의 자료집, p.19.

25)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 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楊時通 증언, 56~64쪽.

26)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山西省孟縣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앞의 책, 『日軍暴行錄』27편 중 서부 3거점(進圭社, 西煙, 河東)에서 일본군부대가 일으킨 '참안'에 관한 8편의 체험자구술기록이 실려 있다. 그중에 南社村에서 일본군에 의한 대학살 기록이 있는데, 구술자는 候万海, 李貴堂이며, 기록자는 高漢蛟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40년 7월 백단대전으로 일본군 西煙진 도주, 1941년 봄 제등장 ... 南社村은 河東산 거점에서 불과 1리정도의 거리(1리는 500m) 항일 군민의 반소탕 전초역할, 일본군의 이 마을에 대한 원한이 대단하여 상당히 잔학한 폭행. 1941년 4월 29일(음력 4월 4일) 점심식사 후 일본군 소대장 木耳는 일본군 30여명, 괴뢰군 3,40명 지휘하여 ... 조를 심고 있던 李拴貴와 郝臭三과 맞닥뜨려 郝은 즉사. 이는 깊은 상처 ... 그 외 3세 아이, 할머니, 임산부 등등 32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식량, 금전, 물품 등 약탈. 20여명 연행, 河東산에 감금 고문. 마을에서 거액 현금을 건네고 통역 매수하여 구출. 앞의 자료, 39~40쪽.

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그밖에 보름, 한 달, 두 달 등 피해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선불리 피해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일본군 다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중 楊時珍, 南二僕, 曹黑毛, 楊壯來, 王壯秀 등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5명은 대체로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다. 楊時珍은 샤오티옌(小田)이라는 반장이 河東거점에서 東郭湫 거점으로 옮기면서까지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南二僕은 1년 8개월 간 감금되어 남아를 출산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으며, 曹黑毛는 1941년 가을에 붙잡혀서 ‘정보반장’이라는 이의 지속적 폭행으로 42년 봄과 43년 가을에 임신을 하였다가 유산시켰다고 말한다. 楊壯來는 일본군대장이 거점과 그녀의 집을 찾아오는 식으로 1년 이상 폭행에 노출되었으며 王壯秀는 일본군관 한사람이 독점적 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되자 다수의 일본군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유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반장’이라는 일본군의 지속적이고 ‘독점적’인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인데, 일본군의 ‘반장’이라고 지목되는 일반병사와는 다른 특권을 가진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본군은 마을 밖의 토치카 거점에 일본군, 마을 안에 경비대 혹은 유사한 괴뢰부대를 두는 구조를 유지했다. 그런데 지방의 말단에서 보았을 때 경비대의 질은 상당히 악질적이었으며 일본군의 위세를 빌려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일도 있었으며 그 돈으로 아편을 흡입하는 이도 많았다고 한다. 일본군은 현지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경비대에 대해서 일본군 하사관을 교관으로 파견하여 상주시켰다.²⁷⁾

27) 加藤修弘, 앞의 글, 162쪽.

이렇게 중국인 집락 안에 있는 경비대주둔지에 ‘교관’으로 상주한 극히 소수의 일본병 하사관은 촌외의 일본군 토치카 거점에 있는 상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마을 최대의 권력자이었다. 이들 ‘교관’들은 “나쁜 짓은 무슨 짓이든 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증언자들 가운데에서 자주 등장한다. 피해자들의 증언 속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侯冬娥 피해자는 “1942년 음력 8월 초의 어느 날, 伊藤(紅臉, 홍안)대장의 인솔아래 괴뢰 촌장의 집으로 찾아가 ‘가이산시(蓋山西=侯冬娥)’를 요구”²⁸⁾하였다고 하였으며, 李秀梅도 홍안대장에게 벨트로 맞아 실명했으며 그 외 陳林桃, 張小妮, 那三妮, 韓銀梅 등도 홍안대장을 언급하고 있다.²⁹⁾ 郭喜翠는 “木板대장이 네 형부의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너는 여기 남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를 살해할 것이다.”라고 하여서 지속적 피해를 입었다. 曹黑毛는 장기간 감금과 두 번의 임신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정보반장’이라는 사람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에 대해 曹黑毛는 “일본군 정보반장이 무리 속에서 맘에 드는 여자들을 골라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갔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찌지 못하였는데 강간 후 괴뢰군에게 넘겨 進圭거점으로 데려가 요동에 가두었으며 정보반장이 매일매일 찾아와 자고가기도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피해자 중 한사람인 南二僕은 딸 楊秀蓮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당한 어머니는 ‘바보 대장’이 있는 곳에 맞추어 河東촌 羊馬山 산기슭에 있는 砲臺構내의 가옥 에서 바보대장에게 강간당했다. 바보대장이 소탕 나가면 다른 일본군에게 명령해서 감시”하게 하였다고 한다. 楊壯來는 “일본군 대장”은 거점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으며, 그녀의 집으로 와서 강간하기도 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본군 대장은 시간이 나면 그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다. 沁縣 교구거점 피해자들은 일본군 대장 川上를 언급하는 이

28) 張雙兵, 앞의 책, 9쪽.

29) 張雙兵, 앞의 책, 각 증언자별 참조.

들이 다수이며, 郝改英은 “毛 太君이라는 일본군 소대장에게로 보내졌다. 그는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들을 잡아와서 맘에 들면 하룻밤 자기 처서로 데리고 갔다. 하룻밤 폭행을 당한 후 다른 곳으로 보내져 지속적 강간을 당했으며 십수 명까지 폭행을 하였다.”라고 증언하며 馮女兒도 ‘모 태군’을 언급한다.³⁰⁾

이 증언집에 등장하는 ‘伊藤(紅臉, 홍안)대장’ ‘木板대장’ ‘정보반장’ ‘바보대장’, ‘일본군대장’ ‘川上’ 등이 바로 ‘교관’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주변 마을로부터 ‘공출’된 여성이나 직접 납치해온 여성을 자신의 ‘전용’으로 경비 주둔지내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 두고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進圭社에서 나고 자라, 일본군이 마을을 점령하자 팔로군에 입대 게릴라전에 참가하였으며, 進圭社의 일본군 움직임을 감시하여 팔로군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던 張深驢은 당시의 ‘교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百團大戰의 다음해 일본의 1개 중대가 진규사를 점거했다. 병대는 140~150명, 그들의 중대장은 今井이었다. 일본인이 이곳을 점거한지 얼마 안 되서 양천촌의 高程遠이 우리 정원에서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그 때 峽掌村에서 몇 명의 여자가 잡혀왔다.

30) 일본군 토치카에서 사역을 했던 楊寶貴노인은 “일본군은 대장보다도 연령이 비교적 높은 병사들이 특히 악질이였다. 그들은 대장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 특히 바보대장, 고양이귀 두 사람이 악질이였다. … 바보대장은 경비대 교관으로 … 南二僕 강간 … 미야오지가 경비대 포대 앞의 楊銀海 집의 한 동을 접수해서 그곳에 두었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해서 그녀를 노새에 싣고 산상까지 데려오게 해서 강간했다. 그녀는 나에게 “이번에는 누구 상대를 시키는 것인가 몰라 무섭다.” “빨리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능한 천천히 걸어가 달라.” “아침은 가능한 빨리 데리러 와 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한다.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楊寶貴 증언, 69쪽.

그들의 대대장은 吉田, 중대장은 今井, 부중대장은 堀武, 그 아래에 노새, 홍안이 있었으며 谷川이 소대장일 때 일본군은 철수했다. 여성을 폭행한 것은 주로 노새, 홍안, 송곳니라는 사람들이었다. 노새는 森曹長의 별명이며, 마을사람들이 홍안이라고 불렀던 伊藤가 정보반장이었다가 조장으로 승진했다. 송곳니는 원래 포병이었다. 고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악행에 대해서 누구도 어찌지 못했다. 1942년 여름 太行山 전역에서 중대장 今井가 죽은 후 여기에는 2개 분대만이 남았다. 10여명이 있었을 뿐으로 木坂이 두목으로 노새, 홍안이 조장이었다. 그 후 43년 여름에 岩本이라고 하는 대장이 전임해왔지만 젊어서 이들 고참병을 어떻게든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홍안이라고 불린 伊藤가 여성을 원하면 대장 岩本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³¹⁾

위의 증언을 통해서서는 장교가 아닌 오랜 군생활을 해야만 했던 고참병들이 더욱 악행으로 치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괴뢰군(정권, 단체) 관여여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 일본군의 성폭행이 자행되는데 있어서 중국인 조직 즉, 自衛團, 漢奸, 괴뢰촌장, 촌간부, 維持會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일본군 점령이 안착되어 감에 따라 조직되는 중국인 괴뢰기관과 일본군의 관계 그리고 관여 방식이 山西省의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양태를 일정부분 결정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尹玉林的 경우 “自衛團 團長 劉二杻(李二杻?)이 일본군과 함께 와서 산위의 포대로 가라고 명령”하고 끌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31) 班忠義, 앞의 책, 152~153쪽.

侯冬娥는 두 번 끌려가는 과정에 ‘**괴뢰촌장**’ 두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 馮將香은 “**林士德**이라는 **한간**이 군대의 세탁, 청소 등의 잡무를 한다며 데리고” 갔다고 말한다. 그 외 성폭력에 한간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는 증언자로는 劉乃妮, 侯巧良 등이 있다.

張二妮의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進圭거점에 보낼 여자를 선출”하였으며, 張二妮로 결정되어 **마을 간부**들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게 되었다. 韓桃桃도 “우리집과 마을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촌간부들이 매일 우리 집으로 와서 설득하여 어쩔 수없이 허락”했다고 증언한다. 賈石頭는 일본인에 대한 ‘임무’를 교대하라고 괴뢰 촌장이 사무소로 불러 말하여서 거점의 “위안부”가 되었다. 侯金良은 “16세의 여름에 일본군은 우리 마을에 처녀들을 요구했다. 마을의 괴뢰간부는 … 일본군이 격노하여 그냥두지 않겠다고 협박,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성격이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은 侯金良을 선택하였다.” 괴뢰 ‘치안’ 마을은 일본군에게 협조하여 무작위로 살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바랐으며 그 외 것을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밖에 항일 관련 활동가들 주로 공산당원들에 대한 밀고자로 한간을 언급한 증언자들이 상당수이며 항일세력을 체포 고문하는 가운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장기적으로 행해진 예가 다수 있다.

일본제국은 山西省을 점령 한 후에 통치를 위해 일본군 특무공작기관이 관여하였으며 공작괴뢰지방정권의 통치기구가 형성되었다.³²⁾ 여기서 特務공작이란 군사작전과는 구별되는 일본 측의 정치, 경제, 문화 제 방면에 관한 정무공작을 말한다. 화북에서 특무공작을 담당했던 것이 1937년 8월말까지 북지나방면군사령부가 편성되었을 때 참모부와는 별도로 조직된 특무부이다. 山西省에 침공한 북지나방면군 제일군의 경우 참모부

32) 이하 특무기관과 괴뢰정권에 대해서는 堀井弘一郎, 앞의 논문에서 인용.

에 제1과 (작전)와 제2과 (정치, 첩보)를 두고 제2과가 특무공작을 담당하였다. 특무기관을 통해서 성공서나 각급 지방행정기구에 고문, 보좌관, 기술원, 선무반, 연락원 등을 파견하였다.

점령지역의 확대에 따라 경제시책을 포함한 정무가 요구되었으며 일원적으로 통괄 지도하는 중앙기관과 현지 연락원을 필요로 하였다. 일상적으로 현과 마을의 중국 측 요인이나 일반주민과 접하고 있던 연락원, 신민회원, 선무반원 등 특무 관계자의 조악한 자질, 풍기문란, 위안소의 설영이나 이용 등은 일본군 말단에서 무계도의 성폭력을 용인하는 저류가 되었다.

특무부는 山西省 太原에서 괴뢰정권수립공작을 전개했으며 1937년 11월 일본군 점령 후 선무반 공작에 의해서 상품의 유통관리를 위해 ‘공익시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상공업 ‘太原市 商務會’가 조직되고 치안을 유지하고 일본군에게 협력하기 위한 ‘太原 清郷隊’가 조직되었다.

孟縣의 경우 1938년 1월 城內 鐘鎭街에 선무반 성립, 上社, 西煙, 東會里에 분반이 생겨, 2, 3명의 선무반원이 배치되었다. 중국인 선무반원은 태원의 선무반에서 훈련 후 파견하였다.

孟縣에는 한편으로 1937년 2월 공산당지부가 西煙진에 결성되어 현내 48개 마을에 공산당지부가 확립되어 있었다. 5월 공산당과 염석산정권이 합작하여 만든 정치단체 희생구국동맹회 孟縣지부가 현성에서 결성되었으며, 9월 항일민주정권이 수립되었다. 38년 1월 진찰기변구 五台, 定襄, 孟縣 등 현의 항일연합정권 성립되어 孟縣 내 항일정권이 수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침공으로 현지 괴뢰정권이 수립되자 이중권력상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중 권력상태의 갈등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깊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군 점령 정권의 경비대도 조직되는데, 1938년 11월 孟縣현성 西坂下에서 지방무장부대 보위단 성립, 39년 1월 孟縣 경비대로 개칭

되었다. 경비대는 일본군과 협력해서 해방구, 근거지 소탕, 정보수집, 항일분자 척결, 체포 임무 등을 맡았다. 河東촌의 경우, 마을 중앙에 경비대 포대를 쌓고 대장으로 불린 일본군 하사관 교관이 경비대 실권을 쥐고 있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비대와 維持會의 협력 아래 일본군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여성을 공출시키는 시스템이 말단 괴뢰정권아래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레벨의 무장부대인 경비대이외에 자위단, 소공대도 조직되었는데 곤궁자, 장애인, 아이, 노인들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말단 무장부대라고 할 수 있다. 1942년 11월말 孟縣 161개 마을 중 124개 마을에서 결성되었으며, 현인구 13만 4,810명 중 단원 수는 11,812명으로 경비는 각 촌이 부담하여 주민에게 징수되었다. 경비대와 자위단은 때때로 일본군의 침병 역을 맡았다. 孟縣은 치안지구의 최전선이며 현내에 준치안지구와 미치안지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維持會(상무회)를 통해 장작, 물, 음료, 인부, 여성제공 등을 할당하였다. 당시의 주민들은 상황에 대응하여 ‘항일’ 혹은 ‘친일’을 유동적으로 선택한 것 같다. 維持會 회계를 맡았던 楊時通은 維持會 성립 당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40년 음력 12월경 일본군이 두 번째로 들어왔다. 장기화되자 마을 사람들도 어쩔 수없이 돌아왔다. 남자가 먼저 돌아오고 여자들이 돌아 ... 일본군과 마을사람들의 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살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자진해서 일본군에게 협력하기 위한 말단 행정기관인 ‘維持會’를 조직하였다. 維持會 멤버는 주변 마을에서 ... 維持會 본부는 河東村에 두고 전용 방도 있었다. ... ‘孟縣 河東村 維持會’라는 간판 ... 회장은 호선으로 결정하였다.³³⁾

33)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

이렇게 만들어진 維持會와 경비대 등의 일본군의 괴뢰 행정과 무장조직이 여성의 연행과 감시에서 일본군의 성폭력에 가담하고 자신들이 성폭력에 가담한 흔적도 보인다. 이러한 중국 측 무장조직의 협력 아래 일본군의 자유로운 행동과 성폭력이 가능했다.

특히 河東村에는 다수 여성을 감금하여 지속적으로 강간한 ‘楊家院子’, 즉 점령지의 ‘위안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楊寶貴노인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일본군은 주민을 가옥에서 내쫓고 마을 안에 여성을 상시 두는 장소를 만들게 했다. 말 매매를 했던 楊福手が 장남인 4형제의 집이 정원이 넓고 방이 많아서 그 집이 점수되어 사용되었다. 건물은 중정을 둘러싸고 4개의 방이 있었으며, 각각 여성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만들게 한 것은 1942년, 43년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 여성들은 일본군이 상무회에 제공하도록 명령해, 상무회가 주변 마을들에 요구하여 각 마을로부터 데리고 왔다. 그때 댓가로 촌공소가 가족에게 돈을 건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곳을 마을 사람들은 ‘楊家院子’라고 불렀으며 여성들의 이름에다 그녀들 마을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 상시 수명의 여성이 있었으며 외출은 자유였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여기에 여성은 모두 다른 마을에서 데려온 자들이었다. … 여성들을 산위 포대로 데려가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好看, 二毛, 二妹로 불린 여성들을 기억하며 노새에 실려 가는 그녀들은 무표정으로 포기한 모습이었다. 그녀들은 모두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팔로군도 납득한 가운데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사라진 후 무사히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다.³⁴⁾

이 ‘楊家院子’를 만들었던 것은 ‘바보태군’이라는 ‘교관’이었으며, 楊

求裁判を支援する會)楊時通 증언, 57쪽.

34)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 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楊寶貴 증언, 69~70쪽.

時通은 “주변의 마을에서 모은 여성을 두는 장소를 만든 다음부터 마을 여성에 대한 폭행은 적어졌다”고 말한다. 이어서

할당받은 여성들을 수용한 집에 관리자는 특별히 두지 않았다. 여성들의 출입도 자유로웠다. 여성들이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할당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모은 돈을 가족이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南二僕의 경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여 강요당하고 제공되었던 것이다. 돈은 받지 않았다. 또한 그녀의 친정마을은 포대 가까운 南頭村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면 바로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정도 있었다.³⁵⁾

이와 같은 증언은 점령초기에는 남경대학살시기에 행해졌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무자비한(성)폭력이 행해지다가 지배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중국인 괴뢰정부가 만들어지면 일본군‘위안소’제도에 근접한 형태의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의 촌로인 葛孟五는 당시 南社鄉 穆來窪(현재의 표기 木來凹) 마을의 당시부 서기였다고 한다. 일본군의 성폭력으로 정신이상인 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내용 등을 증언하였다. 이어서 河東촌 維持會가 만들어진 후 할당 받은 여성 중에 二妹子라는 여성이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維持會의 할당을 받고 제공되어 河東촌 羊馬山 포대의 일본군대장의 첩이 되었다. 남편이 겁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이 이사람 아내라면 제공해도 좋다고 보아 일본군에게 제공 … 二妹子는 한번 포대에서 도망해서 자기 마을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일본군이 마을로 찾으러 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³⁶⁾

35)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楊時通 증언, 59~60쪽.

이는 일본군의 성폭력을 일부 여성을 희생양 삼아서 컨트롤 하고자 하는 목인의 카르텔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4. 석방상황

석방상황에 대한 증언을 보면 마을을 떠나거나 몸이 망가져 버려지거나 도망해서 탈출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석방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은화나 물자, 가축 심지어 아편 등을 건네고 풀려났다고 증언한다. 가시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는 피해자의 석방을 위해 당시 금전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구이촌(進圭-필자) 거점에서도 중국에서 한간이라고 불리며 일본에 협력한 자들이 원고들을 납치하거나 강간하기도 했다. 원고들은 거점에서 석방되는 조건으로 은화나 양모를 요구받았는데 이는 중국의 토비들이 곧잘 하는 짓이었다. 이로 보아 중국인 한간이 강요했음이 틀림없으며 일본군이 요구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한간은 일본군이 요구하고 있다고 원고의 가족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다.³⁷⁾

그런데 금전수수가 중국 토비들의 수법으로 “일본군이 요구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지만 다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36)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葛孟五 증언, 119쪽.

37) 가시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 「일본군의 잔학행위와 성범죄」, 308~309쪽.

중일전쟁 당시의 일본군대가 식량물자의 **현지조달**이라는 **약탈주의**를 채용한 전근대적 군대였던 탓에 중국 민중들을 적대시하는 폭행을 작전으로서 병사에게 강요한 사실이 중국 여성의 정조 약탈행위를 유행하게 했다.³⁸⁾

山西省의 일본군들 특히 산골 곳곳으로 파견된 군인들은 더구나 ‘현지조달’이라는 약탈주의를 채용한 결과 스스로 물자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군이 요구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楊時通은 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여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다른 곳에서 연행된 여성들은 가족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돈(인질금)을 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維持會가 할당한 여성의 경우 돈을 내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할당 당시 維持會가 돈을 가족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연행해서 2, 3일 후에 돈을 받고 돌려보낸 여성의 경우는 그 상황도 인수도 모른다.³⁹⁾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한간에게 건넨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연행해서 강간한 후 돈을 받고 해방시키는 경우, 한간이 그 여성의 집에 와서 “얼마 내놓으면 도와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경우와 가족이 중개를 해 줄 수 있는 한간이나 경비대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건넨 돈은 그대로 일본군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으며, 한간이 일부 차

38) 가시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 「중국전선의 일본군 성범죄」, 275쪽.

39) 앞의 글, 楊時通증언, 59쪽.

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한간 중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었으며 좋은 한간은 전역 일본군에게 넘기지만 나쁜 한간은 착복을 반복했을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본군에게 주러 갈 때 ‘따라오지 마’라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⁴⁰⁾

위의 글에서는 감금 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석방에도 중국인 괴뢰조직이 깊게 간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한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후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해지면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출을 위해 얻게 된 빚을 갚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증언을 한 피해자(周變香)도 있다.⁴¹⁾ 이는 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달리 구해낼 방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候冬娥 같은 피해자는 달리 구해줄 가족이 없어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那三妮는 “30여일이 지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남편이 나를 구해주길 간절히 원했지만 평생 남의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었다.”⁴²⁾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陳林桃는 잡혀갈 당시 “일본군 앞잡이인 張昇如, 張盟生이 선두에 서서 내 옆으로 와서 총상으로 나를 때리면서 ‘이 여자입니다.’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이 때 언급한 張盟生은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劉玲月=萬愛花의 시누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오고 그녀를 놓아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었다.”⁴³⁾라고 말하였다. 候巧蓮은 6명이 함

40) 앞의 주, p.60

41) “10일이 되지 않아 나는 이미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치르고 가족들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으며 ... 채무를 갚는데 20년이 더 걸렸다. 70년대에나 다 갚을 수 있었다.” 張雙兵, 앞의 책, 140~141쪽.

42) 張雙兵, 앞의 책, 148~149쪽.

43) 班忠義, 앞의 책, 46쪽.

게 감금되었지만 “함께 연행된 陳喜轉은 일본인의 앞잡이로 배신한 陳志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바로 석방되었다. … 2명의 젊은 여자들은 시집에서 돈을 준비해서 10일 전후로 귀가 … 전족을 한 엄마가 친척집을 돌며 돈을 빌리고 가축과 집을 전부 팔아 700원 정도를 모아서 나를 찾으러 왔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보내주지 않았다.”⁴⁴⁾라고 증언하였다.

侯二毛와 陳喜雲과 관련한 증언을 해준 주변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나 陳喜雲에게 일본군과 관계있는 친척이 있어서 바로 풀려났다. 남겨진 侯二毛는 일본군이 윤간,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그녀의 집은 너무도 가난하여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한 푼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본군의 폭행을 견디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 중절을 위해 독약을 복용, 사망한 아이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사망⁴⁵⁾하였다고 말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었던 여성(周變香)과 그렇지 못했던 여성(那三妮, 侯巧蓮, 侯二毛)과의 차이가 피해기간 등에 있어서 장단을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대한 협력 관계를 만든 친인척(陳喜雲, 劉玲月=萬愛花, 陳喜轉, 陳喜雲)의 존재 여부 등이 피해자들의 피해의 경중을 가르기도 했다는 사실이 증언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5.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후유증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후유증은 비단 정신적, 육체적으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

44) 班忠義, 앞의 책, 215쪽.

45) 張双兵, 앞의 책, 136쪽.

으로 밀어 넣은 사회적 후유증을 만들어 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임과 부인병을 심하게 앓았으며, 정신질환을 일으킨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지역의 피해자 대부분이 90년대 증언채록을 할 당시에도 전족을 하고 있었는데, 염석산 정권이 대대적으로 天足운동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孟縣의 서부지역은 검사원을 매수해서라도 이 풍습을 지켰다고 한다.⁴⁶⁾ 이처럼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봉건적인 지역에서 적국의 남자들에게 ‘더럽혀져’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여성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의 피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은 없었으며 나도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 20살 때 첫 번째 결혼 그러나 신경불안으로 6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버림받고 ... 재혼 ... 성생활도 불가능하였으며⁴⁷⁾

더구나 봉건의식의 정점과 같은 “농촌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경제적, 윤리적, 관습적으로 폐쇄적인 작은 마을에서 여자 혼자 사는 일을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혼처를 찾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더욱 외진 곳으로 시집을 가야했으며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에 시달리는 생활을 해야 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불임은 노후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으로 돌아온 侯巧蓮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 양친은 일본군에게 짓밟혀 “평판이 나쁜”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집을 보내고자 하

46) 班忠義, 앞의 책, 79~80쪽.

47)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 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79~82쪽; 張雙兵, 앞의 책, 165~167쪽.

였다. 자신들이 없다면 여자 혼자서 시골에서 살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딸의 일을 결정하고자 高庄村에서 사위를 찾았지만, 누구도 일본군에게 더럽혀진 딸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누구도 시집가지 않는 극빈자로 혼자 살고 있는, 어려서부터 양과 함께 살아온 양치기와 결혼시켰다.⁴⁸⁾

피해자 侯冬娥는 일본군에게 잡혀 들어가기 전에 낳은 아들은 언제나 “你媽媽進過鬼子砲樓(네 엄마는 일본놈 토치카에 갔었다)”라고 놀림을 당하고 울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남편 李雙喜는 젊은 새로운 여자와 함께 돌아와 이혼”당하였다. 피해자들은 혼인의 어려움만을 겪었던 것은 아니다. 侯冬娥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중의 “盖山西의 3번째 자살 미수는 가정문제 이외에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

1952년 겨울 銅爐村에서 행해진 당 내부의 “불순분자” 배제 즉 숙정은 동이다.⁴⁹⁾ 李狗看(侯冬娥의 두 번째 남편)을 포함하여 수십명의 공산당원이 제명되고 그 중에 盖山西도 포함되어 있었다. 盖山西는 1942년 “공산당원 자수대회⁵⁰⁾”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두 번이나 일본군 토치카에 들어갔

48) 班忠義, 앞의 책, 221쪽. 다음은 피해자 李秀梅의 증언이다. “세월이 흘러 성인했으나 결혼상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불운을 동정했지만 아내로 삼고자 하지는 않았다. 훗날 아주 편벽한 시골 작은 마을의 남편을 찾아 결혼시켰다. 그는 나의 소식을 전혀 몰랐고 성실하고 나에게도 잘해주었다.” 張雙兵, 앞의 책, 62쪽.

49) 중국혁명의 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상개조=인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丸山昇, 2001, 『文化大革命に到る道—思想政策と知識人群像』, 岩波書店, 19쪽. 그렇다면 사상개조를 위해서는 ‘불순분자’ 즉 개조해야할 대상의 선별이 전제된다. 1952년은 토지개혁이 일단락되는 시기이지만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만들어진 ‘전시상황’이 선별을 통한 배제에 불을 붙이고 있던 시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숙정운동도 삼반오반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50) 여기서 ‘공산당원자수대회’란, 1942년 3월에 孟縣의 당조직은 현아래 12구에 지부를 두고 있었는데 제10구의 당조직위원 王林이 투항하였다. 이를 기회로 進圭社거점 일본군 ‘청향대’ 소대장이 4월 16일 進圭社 주변 28개 마을 300여명의 공산당원을 進圭社로 모아 ‘청향대회’를 개최하여 집단적 자수를 강제한 사건이다. 内田知

다” 때문에 “무저항” 즉 적에게 “협력적이라고 간주된 것일까?⁵¹⁾

이러한 중국의 정치투쟁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비단 侯冬娥만이 아니다. 南二僕은 그 딸과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三反五反운동⁵²⁾ 때 “일찍이 일본군과 너무 오래 함께 있었으며 게다가 일본군을 위해 아이까지 낳았다.”는 이유로 “역사적 반혁명”이라는 죄로 3년간 감옥처분을 받았다.” 그 후 “일본군과 오래 함께 했던 것도 일본군의 아이를 낳은 것도 南二僕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고 판명되어 원죄는 풀렸지만, 2년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반혁명’이라는 낙인은 없어지지 않았다. 문화대혁명 당시 ‘역사적 반혁명’이라고 적은 커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사람들 앞에 서있거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잔업하면서 마지막으로 귀가를 허락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⁵³⁾

南二僕은 문화대혁명시기 1967년 병마가 덮쳐 과거의 일들에 대한 “사회여론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그 외 피해자 楊壯來는 “일본인을 불러들였다”하는 비난을 줄곧 받았다. “사실 그녀는 일본인

行「山西省孟縣における日本軍占領統治と抗日運動」, 앞의 책, 370쪽.

- 51) 班忠義, 앞의 책, 319쪽. “1952년 겨울 영원히 잊지 못할 겨울. 整黨운동 중 일본군에게 두 번 끌려간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당지부서기는 일본인에게 죽음을 당해 아무도 입당과 입당 후 활동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다. 누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일본군이다. 한스러운 일본강도” 張雙兵, 앞의 책, 21쪽.
- 52) 삼반오반투쟁의 삼반은 反汚職, 反 낭비, 반관료주의를 가리키며, 오반이란 뇌물, 탈세, 국유자재 절취, 부실공사와 재료속이기, 국가경제정보 절취[五毒]에 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래 전자는 주로 당과 정부 간부의 부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건국 후 특히 도시에서 간부들의 부패가 생겨난 것에서 시작되었다. 급기야 이러한 부패는 뇌물 등 자본가의 악덕행위와 연결되어 삼반오반이 일체가 된 운동이 된다.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증산절약’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간부의 부패가 적발되어 간다.
- 53)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楊秀蓮 증언, 53~54쪽.

의 협박 아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으며 상세한 정황도 알지 못하고 이후로 한간이라는 오명이 따라 붙었다.”가 결국은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 외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수(姚乃妮, 張改香 등) 있으며 동네를 완전히 떠나 멀리 가서 산 피해자도 있다(侯金良, 河北省으로 이주). 萬愛花는 劉玲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다른 현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이러한 후유증을 시야에 넣다보면 일본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이후 전쟁 범죄, 혹은 일본제국주의의 특수한 전쟁 범죄로만 인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태가 전개된다. 일본군의 성폭력을 피해자의 시점에서 쫓다보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단일한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山西省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술에 대하여 몇 가지 유형에 따라 고찰해보았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들은 대부분 1939년과 1941년에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구술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1939년 일본군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0년 백단대전에서 크게 패하면서 물러났다가 재점령한 1941년을 전후한 시기에 잔인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감금기간은 1년 이상 장기간 감금되어 성폭행을 견디어냈다는 증언부터 몇 일 혹은 십 수 일 동안에 걸쳐서 폭력을 당하였다는 증언까지 다양하다. 또한 다수의 일본군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사람부터 한두 사

람의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점령초기부터 점령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걸쳐서 일본군의 성폭력의 양태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감금기간과 폭행에 관여한 일본군의 인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폭행은 일본군에게 협조했던 ‘한간’들과 파괴조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목을 당한 여성들부터 일본군의 요구에 파괴조직들이 마을의 여성들을 모으거나 파괴 간부의 집요한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응해야만 했다는 주장 등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넷째, 석방상황을 보면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維持會 등의 파괴조직을 거쳐서 행하는 식으로 여성들의 석방을 위해서는 금전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군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네트워크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져 구출할 수 없는 경우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버려졌다는 증언도 적지 않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의 성폭력을 겪어낸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후유증은 육체에 남겨진 상흔을 넘어 2차, 3차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낳으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항상 가해자들에게 보다 피해자들에게 더욱 잔인한 오욕이 뒤따르는 특징을 보이는데 중일전쟁기간에 일본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張雙兵, 2014, 『“慰安婦” 調查實錄』, 江蘇人民出版社.
- 段瑞秋, 2014, 『女殤-尋找侵華日軍性暴力受害者』, 中國青年出版社.
- 石田米子・内田知行編, 2004, 『黄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 班忠義, 2006(2011), 『ガイサンシー(蓋山西)とその姉妹たち』, 梨の木舎.
- 大森典子, 2008, 『歴史の事実と向き合って-中國人「慰安婦」被害者とともに』, 新日本出版社.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山西省孟縣委員會・縣史資料研究委員會編, 1985, 『孟縣淪陷及光復概述』, 『孟縣文史資料』 第4輯.
- 가시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 2011, 「중국전선의 일본군 성범죄」, 강혜정 역, 『일본의 군‘위안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가시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 2011, 「일본군의 잔학행위와 성범죄」, 강혜정 역, 『일본의 군‘위안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손엄홍, 2014, 「중국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자료 수집 및 연구현황과 과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 劉萍, 1999, 「關於日軍山西“慰安婦”的調查報告」, 『抗日戰爭研究』 2.
- 曉蘇, 2004, 「“慰安婦”這一葉屈辱黑暗的歷史」, 『檔案天地』.
- 劉玉珍, 2013, 「日軍娘子關慰安所遺址調查研究」, 『經濟研究導刊』 10.
- 田蘇蘇, 2005, 「日軍慰安婦政策在華北地區的實施」, 『抗日戰爭研究』 2.
- 堀井弘一郎, 2004, 「山西省における日本軍特務機關と傀儡政權機構-孟縣の性暴力に關聯して」, 石田米子・内田知行編 『黄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 内田知行, 2004, 「山西省孟縣における日本軍占領統治と抗日運動」, 石田

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石田米子/内田知行, 2004, 「山西省の日本軍『慰安所』と孟縣の性暴力」, 石田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石田米子, 2004, 「日本軍性暴力にかんする記憶・記録・記述 - 山西省における戦場性暴力の調査から」, 石田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池田恵理子, 2004, 「田村泰次郎が描いた戦場の性-山西省・日本軍支配下の買春と強姦」, 石田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創土社.
山西省・明らかにする會(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の實体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支援する會), 2004, 「山西省孟縣農村における日本軍性暴力被害の証言記録」,石田米子・内田知行編『黄土の村の性暴力』創土社.

加藤修弘, 「証言解説 大娘たちの村を襲った戦争—山西省孟縣の農村から見た日本軍の相貌」, 石田米子・内田知行編, 『黄土の村の性暴力』, 創土社.

中國における日本軍の性暴力を明らかにし賠償請求裁判をす支援する會編, 2000, 『今こそこの思いを』.

丸山昇, 2001, 『文化大革命に到る道—思想政策と知識人群像』, 岩波書店.

Abstract

A Review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Based on Oral Statements by Victims
in Shanxi Sheng, China -

Lee, sunyi

I reviewed oral statements from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enslavement in Shanxi Sheng, China in different categories and concluded as follows:

First, most victims stated that they had been enslaved from 1939 to 1941, as the area in which they lived was at that time under Japanese rule. In addition, the Imperial Japanese Army was heavily defeated during the Hundred Regiments Offensive in 1940, but then reoccupied the region in 1941; in the postwar years, the Japanese military committed various atrocious acts.

Second, the periods of confinement varied according to each victim; some claimed that they were locked up and raped for more than a year, while others mentioned a few days or roughly a dozen days. Some were raped by several Japanese soldiers, while others by one or two continuously. This infers that Japanese sexual enslavement had developed in stages from the early years to the stabilized periods of occupation.

Third, as implied from the confinement periods and the number of Japanese soldiers involved in sexual violence, it is inevitable Chinese traitors (Hanjian) and puppet groups who cooperated with the Japanese

military would be brought up. Some victims stated that they were picked up by Chinese traitors (Hanjian), collected by puppet groups due to requests by the Japanese soldiers, or persistently asked by officers of puppet groups and had no choice but to accept it.

Fourth,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financial dealings between the Japanese military and puppet groups, including the Maintenance Association, which Japanese soldiers directly asked for money in order to release the victims. Furthermore, personal connections, especially relatives who were closely interacting with Japanese soldiers, were utilized as ‘sources’ for discharges. As such, women without money or social networks were not able to be saved and ended up being abandoned with completely damaged bodies.

Lastly,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enslavement have serious after-effects. Not only scars on their bodies, but also second and third psychological and social damage have been torturing the victims.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lways entails a cruel disgrace with regard to the victims, rather than perpetrators; the victim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were no exception.

Keywords : China Shanxi Province, the Japanese Empire, Japanese militaries, sexual violence, victims of sexual violence, oral history, “comfort women”, the secondary damage

